

태극전사와 월드컵 2차례 한술밤



데 아드보카트 감독의 뒤를 이어 한국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펠 베어백(50) 신임 감독은 태극전사들과 2차례 월드컵을 치른 대표적인 '한국통'이다.

베어백 감독은 널리 알려진 대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도와 '4강 신화'를 일궈냈고 2006 독일월드컵에서도 아드보카트 감독을 보좌하는 등 누구보다 한국 선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 가장 뛰어난 지한파(知韓派)로 평가되고 있다.

히딩크, 아드보카트처럼 네덜란드 출신인 베어백 감독은 1956년 3월12일생으로 1974년 네덜란드 프로축구 스파르타 로테르담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해 1980년까지 현역으로 뛰었다. 1981년 같은 팀 코치로 지도자의 길에 입문해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감독 대행(1989-1991년), 네덜란드 FC 그로닝겐 감독(1992-1993년), 일본 프로축구 2부리그(J2) NTT 오미야 감독(1998-2000

■ 펠 베어백 누구인가 선수들 장·단점 파악 카리스마는 검증 안돼

년)을 거쳤다. 2001년에는 히딩크 감독과 함께 한국으로 옮겨와 수석코치로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고 이후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 2군 감독(2002.7-2003.6), J리그 교토 퍼플상가 감독(2003.7-11) 등을 지냈다. 이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대표팀 지휘봉(2003.12-2004.6)을 잡으면서 국가대표팀을 처음 지휘했다. 2004년 11월 독일 보루시아MGM 수석코치를 맡으면서 아드보카트 감독과 인연을 맺었고 2005년 7월에

는 아드보카트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UAE)로 옮겨왔다.

대한축구협회가 2005년 9월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 후임으로 아드보카트 감독을 찾아낸 것도 베어백 때문. 축구협회는 당시 베어백을 수석코치로 끌어 아드보카트를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화려한 클럽팀 및 대표팀 경력에도 베어백 감독은 정작 대표팀을 직접 지휘한 경험이 떨어지는 데다 히딩크나 아드보카트처럼 선수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일단 다른 감독을 찾는 데 드는 시간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없애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표팀의 월드컵 경력을 아어나가려는 복안으로 베어백 감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펠 베어백 감독 향후 일정

- ▲ 28일 공식 기자회견
- ▲ 30일 네덜란드 출국후 휴식
- ▲ 7월 중순 귀국 대표팀 선발과 소집 등 공식업무 시작
- ▲ 8월 16일 대만과 아시안컵 예선 2차전 원정경기 데뷔전
- ▲ 9월 2일 서울월드컵 경기장 이란과 아시안컵 예선 3차전
- ▲ 9월 6일 대만과 예선 4차전 홈경기
- ▲ 10월 11일 시리아와 예선 5차전 홈경기
- ▲ 11월 15일 이란과 예선 6차전 원정경기
- ▲ 12월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대비 23세이하 대표팀 조련 및 출전
- ▲ 2007년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차 예선대비 대표팀 구성 훈련돌입
- ▲ 2007년 7월 아시안컵 본선 시작
- ▲ 2007년 하반기, 베이징 올림픽 1차 예선
- ▲ 2008년 상반기, 베이징 올림픽 2차 예선

베컴 한방에 ... 잉글랜드 8강 골인



■ 잉글랜드-에콰도르 (1-0)

무기력중에 빠져있던 '중가' 잉글랜드가 '캡틴' 데이비드 베컴의 한방에 깨어났다.

잉글랜드는 26일 슈투트가르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독일월드컵 축구 16강전에서 후반 15분 베컴의 천금같은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 남미의 난적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포르투갈과 7월2일 0시 켈렌키르헨에서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잉글랜드는 16강전의 유일한 유럽-남미 대결에서 승리해 40년 만에 꿈꾸는 월드컵 우승을 향해 한 발짝 전진했다.

마이클 오언의 부상으로 웨인 루니를 외롭게 원톱에 세운 스벤 에란 에릭슨 잉글랜드 감독은 프랭크 램퍼드, 스티븐 제라드를 '2선 병기'로 놓고 마이클 캐릭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한 발 내려 중원을 커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전반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전반 12분 중앙 수비수 존 테리의 헤딩 미스로 문전에 쇄도한 에콰도르 간판 스트라이커 카를로스 테노리오의 발에 붙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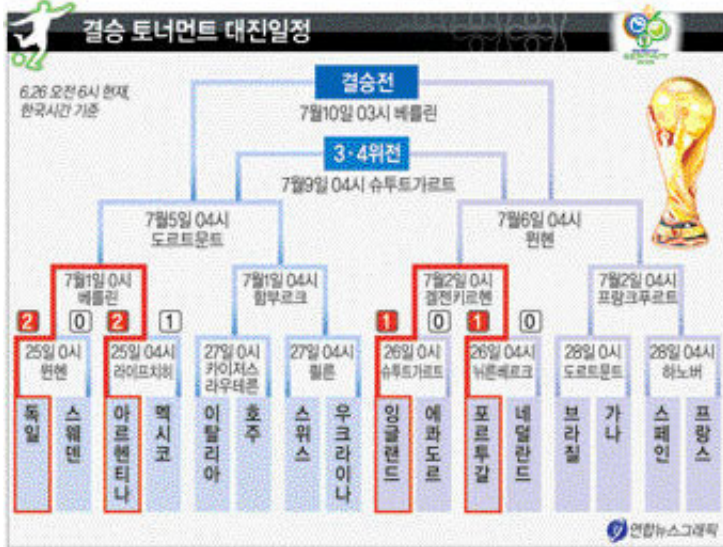
테노리오는 페널티지역에 들어서는 순간 결정적인 오른발 슛을 때렸지만 에슬리 골이 황급히 갖다댄 발에 맞은 볼은 크로스바를 강하게 빙기고 아웃됐다.

골의 육탄 방어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실점을 허용할 상황이었다. 기온 31도의 무더위 속에 답답하게만 이어지던 흐름을 단번에 뒤바꾼 건 역시 베컴이었다. 후반 15분 램퍼드가 끌어낸 프리킥 찬스에서 베컴은 예리하게 눈으로 각을 제다가 오른쪽 인사이드로 볼을 감았다.

전반에 한 번 찬스가 있었지만 각도가 너무 꺾여 포스트를 비껴간 걸 기억하는 베컴은 예리하게 눈으로 각을 제다가 오른쪽 인사이드로 볼을 감았다.

조준점은 가까운 쪽 골 포스트였다. 골키퍼 모라는 먼쪽 포스트 쪽에 치우쳐 있다 키가 곡사포로 휘어오자 몸을 날렸지만 손 끝을 스친 볼은 왼쪽 포스트에 맞고 끝내는 빨려들어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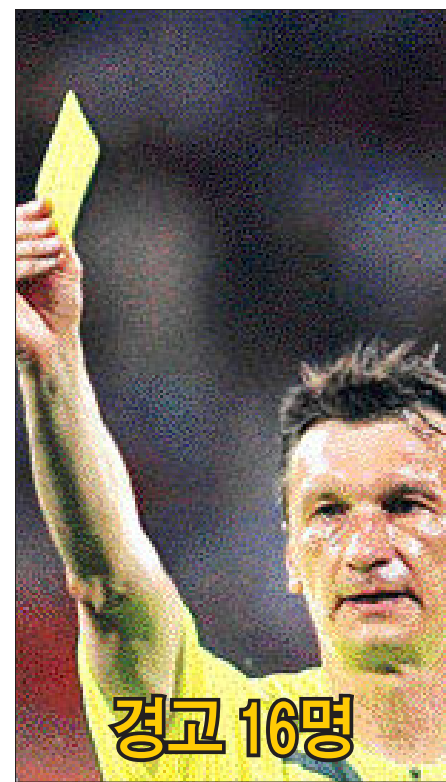


순위	선수명	국가	득점
1	미로슬라프 클로제	독일	4
2	에르난 크레스포	아르헨티나	3
	루카스 포돌스키	독일	3
	막시 로드리게스	아르헨티나	3
	페르난도 토레스	스페인	3
3	바르토시 보샤초키	폴란드	2
	오마르 브라보	멕시코	2
	팀 케이힐	호주	2
	아구스틴 델가도	에콰도르	2
	아우나 디다네	코스타리카	2
	알렉산더 프라이	스위스	2
	스티븐 제라드	잉글랜드	2
	티에리 앙리	프랑스	2
	호나우두	브라질	2
	토미시 로시초키	체코	2
	안드르 셴켈코	우크라이나	2
	카를로스 테노리오	에콰도르	2
	다비드 비야	스페인	2
	파울로 완호페	코스타리카	2
	마니시	포르투갈	2

이외 76명의 선수 각 1득점
평균 1경기당 2.44득점 / 전체 122득점



퇴장 4명



경고 16명

포르투갈 혈전 끝 8강행

스콜라리 감독 월드컵 본선 11연승 행진

■ 포르투갈-네덜란드 (1-0)

포르투갈이 2명씩 퇴장당하는 혈투 속에 네덜란드를 제압하며 루이스 스킨라 감독에게 8강 티켓과 월드컵 본선 11연승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3연승을 거두며 D조 1위를 차지한 포르투갈은 26일 오전 뉘른베르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C조 2위 네덜란드와 2006 독일 월드컵축구대회 16강전에서 전반 23분 미드필더 마니시(29·셀시)의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독일,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에 이어 대회 4번째로 8강에 올라 7월1일 밤 12시 켈렌키르헨에서 '축구 중가' 잉글랜드와 4강 티켓을 다투게 됐다.

브라질 출신 스킨라리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은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서 7연승으로 우승컵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 4경기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만 11연승을 맞으며 대기록을 이어갔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2월9일 더블린에서 열린 아일랜드와 친선경기에서 0-1로 패한 이후 18경기 연속 무패행진(15승3무)을 계속했다. 포르투갈은 네덜란드와 역대 전적에서

6도승3무1패를 거둬, 다시 한번 '천적'임을 과시했다.

네덜란드는 1991년 10월16일 로테르담에서 열린 1992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예선에서 1-0으로 이긴 뒤 15년 동안 포르투갈의 벽을 넘어지지 못하고 있다.

포르투갈 2명, 네덜란드 1명이 퇴장 당하고 후반 인저리타임은 6분이나 주어졌을 만큼 격한 한판이었다.

포르투갈은 전반 23분 미드필더 오른쪽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패스를 받은 데루가 크로스를 올렸고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이를 잡은 파울레타가 쇄도하는 마니시에게 연결했다. 마니시는 공을 잡고 한번 차고 들어가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 골 구멍을 출렁였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포르투갈 9개, 네덜란드 7개 등 이번 대회 최다인 모두 16차례의 옐로카드가 쏟아졌다. 이 중 전반 46분 코스타나(포르투갈)를 시작으로, 후반 18분 칼리트 블라루즈(네덜란드), 33분 데쿠(포르투갈), 인저리타임이 적용되던 후반 50분 히오바니 판 브롱크호르스트(네덜란드) 등이 줄줄이 경고 누적으로 레드 카드를 받아 상처받은 양광으로 남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16강 경기 전망

▲브라질-가나 (28일 0시·도르트문트)
브라질은 조별리그부터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공격진에는 월드컵 통산 최다골 타이 기록을 세운 호나우두(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호나우지뉴(FC바

르셀로나), 아드리아누(인터밀란), 호비뉴(레알 마드리드) 등이 세계 최강의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 카를루스 아우베르투 파헤이라 감독이 누구를 선발로 내보낼지 고민할 정도.

브라질은 가나와 1996년 3월 친선경기에서 한차례 맞붙어 8-2 대승을 거둔 적이 있어 가나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검은 별' 가나는 이번 월드컵에서 돌풍의 주역으로 떠올라 브라질과 16강전 결과를 쉽사리 예측

하기는 어렵다. 월드컵 본선에 처음으로 출전한 가나는 1차전에서 이탈리아에 0-2로 졌지만 이후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체코와 미국을 2-0, 2-1로 각각 누르는 등 점차 물 오른 기량을 선보였다.

독일월드컵 개막 직전 평가전에서 한국에 1-3 패배를 안기기도 했던 가나는 아프리카 최고 공격수 중의 한 명인 아사모아 기안(모데나)을 주축으로 다시 한번 이변을 준비하고 있다.

▲스페인-프랑스 (28일 4시·하노이)
유럽선수권대회나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에 자주 거론되고도 번번이 쓴 잔을 마셨던 스페인이 독일월드컵을 계기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세밀하고 조직적인 패스워크가 장점인 스페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8골을 터뜨리며 막강 화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은 2004년 8월 스페인 대표팀을 맡은 이래 이번 대회까지 25전 무패의 성적

을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프랑스전 승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98년 프랑스월드컵 챔피언인 프랑스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꼽히는 티에리 앙리(아스날)와 '아트사커 지휘관'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 다비드 트레제게(유벤투스)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 4년 전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설움을 씻겠다는 각오다.